금수강산
6
주체113(2024)
루계 제418호 월간

차 례

주체113(2024)년 6월호

제418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즐거운 야영의 하루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부모의 슬하를 떠나 난생처음 제손으로 밥도 해보고 국도 끓여 동무들과 함께 맛보는 재미는 학생시절과 더불어 한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된다.

본사기자 류광혁

2 ‖ 후대사랑의 화원속에

수기
6 ‖ 준공전 첫새벽에 찾아오시여

일화
7 ‖ 위민헌신의 나날에

대담
8 ‖ 소년과학탐구상수상자들이 늘어난다

10 ‖ 소원을 이룬 소년단원들

12 ‖ 인기를 모으는 어린이지능교육용음성도서

14 ‖ 새싹을 찾아내는 교양원들

17 ‖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의 본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8 ‖ 소사하의 가을

20 ‖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21 ‖ 유리공예 《춘추정성》

22 ‖ 백두산 (1)

2

12

30

40

46

48

53

28 ‖ 잔디연구사들

30 ‖ 교육자부부의 지향

32 ‖ 젊음을 주는 집

35 ‖ 천연가죽제품 《포부》가방

36 ‖ 1%의 가능성도 적은것이 아니다

38 ‖ 녀자권투감독 박철준

고향소식
40 ‖ 《온실도시》의 주인들

애국의 넋은 대를 이어
44 ‖ 사지종양학의 초행길을 걸어

민족의 향기
46 ‖ 아름다운 구슬에 비겨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48 ‖ 룡악산의 법운암

력사인물
52 ‖ 사명당

53 ‖ 북관대첩비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54 ‖ 스승의 뒤를 이어 풍경화의 발전에 기여한 김유성

력사이야기
56 ‖ 양태사와 다듬이소리

편집: 김광수, 최은혁, 로윤경

후대사랑의 화원속에

조국에서는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그들의 생기발랄하고 기백있는 모습이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로 간주되고있다.

수백만에 달하는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절인 6.6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조국인민은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후대사랑의 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에 젖어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학생교복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공급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만은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무조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열화와 같은 진정은 며칠후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또다시 분출되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에 놓고 중요당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중대조치로 취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후대들을 위한 그이의 사랑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열렬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일에도 온 나라 곳곳마다에서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졌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두메산골,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소학교, 대학의 신입생들은 새 학년도를 맞으며 보기 좋고 몸에 꼭 맞는 새 교복과 신발, 가방을 받아안았으며 전국의 학원원아들과 섬마을, 산골분교의 학생들 모두가 학용품세트를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개학날을 맞으며 학용품세트를 받아안은 평양중등학원 원아들

서로 도와주며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있는 학생들

걸보기에도 훌륭하고 멋진 학용품세트안에는 《해바라기》상표를 단 각종 연필,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와 중성필, 수정띠를 비롯하여 10여종에 백수십점에 달하는 각종 학용품들이 꽉 들어차있었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속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소년단원들의 대회가 국가의 중요행사로 진행되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들, 육아원, 애육원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이라는 새로운 부름들이 소년단원들의 친근한 길동무처럼 불리워지고있다.

그이의 사랑과 정은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고 따뜻한 축복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어느해 소년단원들의 명절에는 오랜 시간을 바쳐 조선소년단축하단의 경축시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소년단원들과 나란히 앉으시여 음악회도 관람하시였으며 희한한 축포의 꽃보라를 펼쳐주시여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이렇게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온 나라의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와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등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102(2013)년 5월 19일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 야영소를 잘 건설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은정속에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들이 보다 훌륭히 꾸려졌다.

이렇듯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조국의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들리우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는 긍지높은 려정으로 수놓아지고있다.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는 소년단원들의 희망과 포부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앞날의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감이 되는것이다. 하기에 조국의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에게 필요한 쟁쟁한 인재가 될 결심을 안고 언제나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여 최우등생의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 예술인, 체육명수가 되여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여갈 일념으

로 가슴끓이며 하루가 다르게 키도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해가는 소년단원들의 모습은 강성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게 하고있다.

소년단원들이 해빛밝은 교정과 훌륭한 과외교육교양기지들에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선생님과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해나가고있는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화원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줄 아는 미덥고 대견한 사회주의조선의 참된 아들딸들로 성장해가는 조국의 소년단원들이 있어 내 조국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한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미 당중앙을 대표하여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강국의 지위를 결정짓는 척도로 규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 인민들과 후대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그이의 이가르치심은 조선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화국의 본태가 무엇이고 조선혁명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슴깊이 새겨주고있다.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후대사랑의 화원속에서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혁주
조선중앙통신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소년단원들

수 기

준공전 첫새벽에 찾아오시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세계는 조국땅 그 어디에나 어려있습니다.

우리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도 그이의 어버이사랑이 가슴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지금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 야영소에 찾아오시였던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첫새벽의 그날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때 야영소는 새로 개건되여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솔직히 야영소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아이들의 궁전에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모시였으면 하는 소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그이께서 어떻게 야영소까지 찾아주시랴 하고 생각하던 우리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 우리 야영소에, 그것도 날이 밝지 않은 첫새벽에 찾아오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야영소개건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였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한시바삐 개건된 야영소가 보고싶으시여 첫새벽에 찾으신것이였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어렵고 힘든 개건공사를 진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며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시였습니다.

사실 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되게 된데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깃들어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개건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덩지가 큰 3개 호동의 야영각과 식당, 회관, 동물사, 뽀트장, 야외수영장, 운동장 등으로 이루어진 야영소가 새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였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야외수영장의 수질상태도 알아보시고 조약대의 높이도 가늠해보시며 자연경치와 어울리게 물미끄럼대를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안의 계단에서 야영각을 바라보시면서는 비가 와도 야영생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야영각에서 식당까지의 걸음길과 야외롱구장에 지붕을 씌워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더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수 있도록 동물사에는 희귀한 동물들을, 뽀트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기재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동행한 일군들과 우리들은 모두 격정에 목이 메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이를 모시기 전에 우리들도 그러하였지만 야영소를 돌아본 일군들도 이만하면 정말 훌륭하다고, 야영생들을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다고 자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는 곳곳마다에서 미흡한 점들을 일깨워주시며 그 대책을 세워주시니 진정 아이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한 어버이의 사랑이였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야영소가 훌륭히 꾸려진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우리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시였는데 그때가 아침시간이여서 아직 출근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면서 모두를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저희들은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여주시고 완공되였을 때에는 첫새벽에 찾아오시여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야영소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부소장 김금혁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야 한다

평양의 광복거리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있다.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다.

훌륭히 개건된 궁전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수 있다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외부가 요란하다고, 궁전바깥벽에 화강석을 새로 붙이니 궁전이 더 품위있어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궁전은 한해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곳을 찾으시여 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강력한 설계 및 건설력량과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시여 마련된것이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18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궁전을 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부족점과 빈 구석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궁전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소조운영에 필요한것들은 다 제기하여야 하겠다고, 과외교육교양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줄바에는 그쯘하게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합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주체105(2016)년 11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이 사업소로 말하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국의 원아들에게 보내줄 물고기보장을 위해 조직하도록 하신 수산사업소이다.

그때 그이께서는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면서 원아들에게 공급할 물고기수량도 정해주시였다.

이날 물고기가 가득히 쌓인 하륙장을 비롯하여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저장고마다에 명년도 9월까지 공급할 물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해 물고기잡이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원아들에게 공급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　　*　　*

소년과학탐구상 수상자들이 늘어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과장 남철혁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기자: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맞으며 전국소년과학환상모형 및 창안품전시회가 열리고있는데 처음으로 전시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되여온다고 봅니다.

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78(1989)년에 처음으로 전시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화폭을 찍은 사진들을 볼 때면 학생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환상의 나래를 펴고 만들었던 창안품들이 눈에 선히 안겨옵니다.

생각이 엉뚱하고 무엇이나 한번 본것은 제손으로 만들어보고싶어하는 학생소년들이 아닙니까.

그러다나니 시작부터 그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매 학교들에서부터 먼저 전시회준비사업이 진행되여 시, 군(구역)적인 전시회들에서 첫선을 보이였고 착상이 기발한 환상모형들과 창안품들이 전국적인 전시회에 출품되였습니다.

전시회에서 우수한 환상모형을 내놓아 평가를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는 소년과학탐구상장과 메달을, 단체에 한해서는 순회우승컵과 상장을 수여하고있습니다.

기자: 여러 학교들에 대한 취재를 다니면서 소년과학탐구상메달을 단 학생소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이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모범을 따라 많은 학생들속에서 전시회참가열풍이 일어나고있다고 봅니다.

과장: 그렇습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담임교원, 부모들도 자식들과 과학환상모형에 대한 토론을 같이하였고 그에 필요한 자재들도 구해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욕망 하나만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환상모형들과 창안품들은 과학적리치에 맞으면서도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착상으로 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환상모형들은 과학기술부문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대담하게 반영하여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하나하나 착상된 것들이였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전시회에서 특등과 1등을 한 환상모형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공업화된 온실형벼생산공장》, 《핵동력어로잡수선》, 《미래의 사회주의농촌》 등의 창안품들에는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미래를 꿈꾸고 공상하며 앞날을 설계해나가려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이 비껴있었습니다.

특히 수직화된 대형수경온실에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벼는 무려 7모작, 밀은 4모작이나 할수 있는 사회주의전야를 기본구획으로 하여 멋들어진 살림집들과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이며 과학기술보급실, 수직양어장, 알곡창고 등을 갖춘 《미래의 사회주의농촌》을 내놓은 창덕학교 학생 김관록의 모형을 보고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2등을 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제철고급중학교 학생인 박철훈이 내놓은 《미래의 철생산방법》도 바다물에서 얻어낸 중수소와 초중수소를 리용하여 쇠돌을 녹여 철을 생산하는것인데 그 착상이 새로와 참관자들을 놀래웠습니다.

학교도 이름도 나이도 다르지만 매 창안품들에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배워 소년발명가, 소년박사들로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기자: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에 지난해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당선자들도 참가하여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는데 그들의 감격이 크리라고 봅니다.

과장: 옳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시여 학생소년들이 창안한 과학환상모형들을 보아주시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모형을 만든 학생소년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자랑이야기도 들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의 두뇌계발과 사유능력을 높여주는데서 원리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창덕학교 학생 김관록, 평양제1중학교 학생 김강훈, 모란봉제1중학교 학생 김령은, 보통강구역 보통강고급중학교 학생 김려광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며 소년과학탐구상수상자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 결의들을 다지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시회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여 소년발명가, 소년과학탐구상수상자들을 더 많이 배출해내겠습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 * *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23》을 돌아보는 학생소년들

소원을 이룬 소년단원들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원이 있다. 또 그것이 크든작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더우기 아이들은 소원성취에 대한 갈망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그것도 가장 큰 소원이…

꿈에서도 바라던 소원

평안남도의 평성시 양지고급중학교 고급반 1학년 학생 리령성과 평성시 주례기술고급중학교 초급반 3학년 학생 한경명도 꼭 이루고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사내애들이라면 그러하듯이 령성이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난이 여간 세차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는 새로운 물건을 보기만 하면 뜯어보군 하였다고 한다. 하여 부모들은 물론 이웃들에게서도 지청구를 적지 않게 들었다. 그러나 뭇사람들의 눈에 비낀 이 장난이 교원들에게는 철없는 아이의 놀음으로 보이지 않았다. 체계적인 교육은 령성이의 탐구심을 더욱 계발시키였다.

평성시 양지고급중학교
학생 리령성

특히 초급중학교시절에는 과학환상발명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아 사람들로부터 《소년발명가》로 불리웠다. 이 나날 령성이는 공부를 더 잘하여 과학자가 될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그후 이악하게 공부하여 해마다 최우등의 성적을 기록한 그는 그 자랑을 안고 두차례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교원들의 지도와 방조속에 령성이의 재능은 더욱 커만 갔다.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23》에서 그는 미래의 첨단과학기술이 응용된 과학환상모형 《로보트병사》를 내놓아 소년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다.

령성이는 우리 교실문학상을 비롯한 여러 문학상도 수여받은 문학수재이기도 하다.

사물현상에 대한 표현능력이 좋은 주례기술고급중학교 초급반 3학년 학생 한경명도 글짓기를 잘하여 6살에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시절에는 수많은 동요와 동시를 창작하였고 두해전에는 우리 교실문학상을 수여받았다. 그중에서도 3편의 글작품집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시였다.

학습에서 모범이고 나라를 위한 좋은 일도 적극 찾아하는 경명이는 11살에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될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올리였다.

평성시 주례기술고급중학교
학생 한경명

학습에서 꾸준하고 남달리 탐구심이 강한 경명이는 엉뚱한 과학환상발명품들도 내놓아 선생님들과 동무들을 놀래우군 하였다.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23》에 경명이는 과학환상모형 《에네르기절약형도시》를 내놓아 소년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다. 그가 내놓은 과학환상모형은 과학적담보성과 경제적실리성이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받아안은 사랑이 커갈수록 령성이와 경명이는 자기들, 온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들이 가슴속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그럴수록 령성이와 경명이는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자기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뵙고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이것은 점차 그들에게 있어서 꿈속에서도 이루고싶은 소원중의 가장 큰 소원으로 되였다.

새해의 첫날에 이룬 소원

이들의 소원은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꿈같이 새해의 첫날에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오시여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령성이와 경명이도 만나주신것이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속에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격정으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두볼도 정깊이 다독여주시였다.

령성이와 경명이가 만든 과학환상모형들의 과학적원리도 다정히 물어도 주시고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될 결의도 대견하게 들어주시며 그들의 밝은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설맞이공연참가자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처럼 소원하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뵙고 사랑의 축복까지 받은 그들의 기쁨은 하늘끝에 닿았다.

신문과 TV, 방송을 통해 령성이와 경명이는 온 나라에 알려졌고 그들은 가장 행복한 행운아들로 되였다.

경명이의 어머니 리명희녀성은 《경명이의 선생님과 동무들, 친척들은 물론 이웃들도 우리 집으로 밤길도록 축하의 인사를 보내여왔다. 설날과 더불어 내 자식이 받아안은 영광은 우리 가정의 제일 큰 경사, 기쁨이였다. 우리 경명이는 온 나라가 다 알고 부러워하는 학생이 되였다.》라고 격정을 터쳤다.

꿈에서만 바라던 소원을 이룬 령성이와 경명이는 자기들의 일기장에 새해 설날에 받아안은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령성이와 경명이의 행복한 설날이야기는 조국땅에 후대사랑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인기를 모으는
어린이지능교육용 음성도서

최근 교육도서출판사 아동지능교육도서연구소에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며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어린이지능교육용음성도서를 개발하였다.

얼마전 중구역 동안2동에 살고있는 최정심녀성은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좋은 이 도서가 개발되여 첫선을 보이자마자 2살 난 딸애를 위해 그것을 구입하여 근 한주일간이나 리용해보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음성도서를 구입하였을 때 우리 세대주는 이제야 말을 번지기 시작한 아이를 놓고 너무 조급성에 빠져있는것이 아니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명작동화집을 펼치고 아이에게 방법을 가르쳐준 다음날부터 아이가 저 혼자 제법 책을 보기도 하고 설화나 대사를 생동하게 따라하였는데 그제서야 세대주는 어린 자식과 늘쌍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는 부모의 공백을 메꾸어주는 좋은 책이라고 감탄하는것이였습니다.》

어린이지능교육용음성도서는 탁아유치원생 부모들속에서 호평이 높아가고있다.

81권으로 구성된 이 음성도서는 임의의 곳에 손가락을 가져다대면 지능형손전화기에서 본문내용이 랑독되고 그림에 있는 대사와 효과음까지 울리게 되여있어 책의 내용을 실감있게 인식할수 있게 해준다.

핵심은 지능형손전화기에 적재한 어린이지능도서열람프로그람 《친한 동무》1.0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지능도서열람프로그람을 적재한 지능형손전화기의 음성도서대면부에서 임의의 명작그림책을 선택하고 열람시작그림기호를 누른 다음 그것을 받침대에 올려놓는다.

이어 지능형손전화기의 사진기앞에 선택한 그림책의 해당한 페지를 펼치면서 열람한다.

이 음성도서는 아이들의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시켜 책의 내용을 인식하는 속도나 질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하여 어린이들이 임의의 동화내용을 생동하게 재현시킬수 있는 지름길을 놓아준다고 한다.

공훈기자이며 석사인 소장 장대길은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의 세계관형성과 도덕교양, 지능계발과 조선말교육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지능교육도서들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철

연구소의 창작가들

새싹들 찾아내는 교양원들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과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무대에서 사람들은 재간둥이들의 모습을 보군 한다.
그들중에서도 민족악기를 능란하게 연주하거나 민속무용과 민요의 건드러진 멋을 살리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군 한다.
그러한 꼬마재간둥이들의 뒤에는 애어린 새싹들을 찾아내고 키워내는 교양원들이 있다.

형제산구역 서포1유치원 교양원 정향옥

동심에 심어주는 민족의 넋

평양시의 형제산구역 서포1유치원 교양원 정향옥은 꼬마가야금연주가들을 수많이 키워낸 교육자이다.
사실 유치원 2년기간에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배워준다는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초기에 팽팽해진 가야금줄을 당기느라면 애리애리한 손가락들에 물집이 생기기 일쑤이고 연주주법 또한 간단치 않아 아이들은 먼저 인내성을 키워야 한다. 그 인내성은 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였다.
그는 천성적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내여 민족음악교육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함께 밀고나갔다.
놀이를 해도 민속놀이를 많이 조직해주고 민요와 민족악기에 깃든 이야기도 재미나게 들려주었다.
이런 과정에 어린이들의 동심에 민족적인 감정과 가야금에 대한 애착이 소중히 싹트게 되였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안고 정향옥교양원이 배워주는 롱현, 튕기기, 미분연주법 등의 어려운 과제들도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그가 키운 꼬마가야금연주가들은 주체105(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과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무대,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특등, 1등, 최우수상을 련이어 받았으며 TV와 신문, 방송으로 널리 소개되였다.

TV로 방영된 아동예술무대에 출연한 형제산구역 서포1유치원 어린이

2023년에 진행된 전국유치원어린이예술축전 민족기악부문에서 1등을 쟁취한 형제산구역 서포1유치원 어린이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가정은 3대를 이어오는 교육자가정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교정에서 울려온 가야금의 유정한 소리를 들으며 자라난 나는 가야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민족악기교육은 내가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음악의 대를 잇는 문제이다. 나는 앞으로도 나라의 민족음악을 떠메고나갈 민족악기연주가들을 많이 키워내겠다.》

독특한 교육방법들을 활용하여

평양시의 중구역 신양주유치원이라고 하면 민속무용을 잘하는 유치원으로 소문이 났다.
그것은 과외교양원 유영순의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무용소질을 지니였던 그는 개성학생소년궁전에서 무용교육을 받으면서 꼬마무용수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여러 차례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설맞이공연에도 참가하였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교양원이 된 그는 어린이들을 훌륭한 꼬마무용수로 키우기 위해 애써왔다.
교양원으로서의 그의 좋은 점은 재능의 싹을 찾아내는 밝은 눈과 아동무용기초교육에 대한 개성적인 방법론을 소유한것이다.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 부모도 미처 몰랐던 어린이들의 무용재능을 그는 각이한 놀이속에서 대조되거나 반복되는 운동적특징들을 통하여 정확히 판별해내군 한다. 그리고 단순한 반복훈련이나 숙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체질과 심리에 따르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무용지식을 습득시키군 한다.
유치원교육단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아동무용기초교육을 잘 주는것이 기본이라는 관점밑에 그는 팔과 다리를 비롯한 몸부위의 놀림과 모양새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
무용표기법을 알기 쉽게 인식시키는 한편 춤출 때의 자리길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실지동작으로 설명해주면서 어린이들이 각이한 춤동작을 원리적으로 습득할수 있게 하였다.

중구역 신양주유치원 교양원 유영순

특히 그는 조선무용의 멋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여 꼬마무용수들이 형상하는 민속무용들인 《소고와 방울춤》, 《장고와 무용》, 《평고춤》은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과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무대에서 절찬을 받았다.
《민속무용교육은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매우 좋다. 민속무용을 한 어린이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협조정신이 강하며 모든 사물현상을 아름답게

TV로 방영된 아동예술무대에 출연한 중구역 신양주유치원 어린이들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률동에 담아 표현할줄 아는 능력도 키운다.》라고 유영순교양원은 말하였다.

천성, 개성적인 목소리를 살려

《교양원의 목소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천성적이고 개성적인 목소리를 찾

동대원구역 동대원1유치원 교양원 장경주

는데 품을 들이였다. 그러자면 어린이들과 보다 친숙해져야 한다.》라고 평양시의 동대원구역 동대원1유치원 교양원 장경주는 서두를 뗐다.

이것은 음감과 소리가 좋은 어린이들을 찾아내여 그들에게 성악교육을 주면서 그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그는 언제나 어린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노래를 불러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것을 먼저 하면서 그들의 개성을 파악하군 하였다.

한번은 어린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를 찾아내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은 밝고 어두운 소리, 높고낮은 소리를 곧잘 흉내냈다.

그는 이러한 기초가 마련된 다음 꽃화분을 가져다놓고 그 향기를 맡아도 보게 하고 불어난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나가는것을 재현해보도록 하면서 어린이들이 들숨, 날숨조절을 하는 방법도 배워주었다.

뿐만아니라 청음시창훈련을 꾸준히 하는 동시에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사의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얼마 안있어 어린이들의 음역은 보다 넓어지고 풍부해졌으며 자기 고유의 맑고 특색있는 소리색갈을 낼수 있게 되였다.

이들이 부르는 민요독창, 민요제창들은 얼마전 전국적으로 진행된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TV편집물에 출연한 동대원구역 동대원1유치원 어린이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의 본질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었다.

우선 사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것을 밝혔다.

자연은 사람과 무관계하게 존재하지만 사회는 사람의 출현으로 발생하였다.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바로 이러한 집단들을 총체적으로 사회라고 한다. 집단생활을 고유한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사람은 집단적인 활동을 통하여서만 살아갈수 있고 세계에 대한 지배와 개조를 실현할수 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데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사람을 떠난 사회가 있을수 없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생활하는 집단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창조하고 리용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수단들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적재부는 사람들의 생활에 옳게 리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지게 된다. 아무리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해를 주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재부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사회적재부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쓰이는가에 따라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로 구분된다. 물질적재부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리용되는 수단이며 이것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 구분된다. 정신적재부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리용되는 수단들의 총체이며 여기에는 사상과 도덕, 과학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정신문화와 그것을 축적하고 보급하는데 리용되는 수단들이 속한다.

사회적재부는 사회의 존재와 발전의 필수적수단이다. 사회적재부가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으며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나갈수 있다.

사회적재부는 사회적관계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기초우에서 사회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더 많은 사회적재부가 창조되는것은 사회적관계발전의 유리한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생활하는 집단이다.

사회적관계는 사회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한다.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집단적인 활동, 사회생활을 해나가자면 반드시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질서가 사회적관계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으며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지 않은 집단과 집단생활도 없다. 사회적관계가 있기에 집단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존재할수 있다.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생활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며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사회이다.

사회적관계는 그 분야에 따라 정치적관계, 경제적관계, 사상문화적관계로 구분되며 사회적관계들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체계화되고 공고화되면 사회제도로 된다. 사회제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요구와 리익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사회제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이다. 그것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규정되기때문이다.

조국의 사회제도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이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소사하의 가을

(전호에서 계속)

그리 무겁지도 않은 첩약꾸레미를 들고 덜렁덜렁 집으로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어째서인지 소사하가 가까와지자 점점 더 무거워지는것이였다. 어머니의 병이 혹시 더 도지지나 않았을가 하는 불안도 불안이지만 제일 께름직한것은 량사령파의 합작을 완전히 성사시키지 못한채 남만에서 돌아온 사실이였다. 어머니가 알면 못내 섭섭해하실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중환에 계시면서도 나의 남만행을 그토록 독촉한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과 합작을 하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고 대견해서였을것이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만 따지면서 독립운동의 선배들과 등을 돌려대고 지내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것은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가 하는것이였다. 맹물같은 미음조차 잘 삭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갔으니 그사이 차도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중태에 빠져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계시지나 않겠는지 나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쉽게 가늠할수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토기점골의 낯익은 외나무다리를 건느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헤여나오지 못하였다.

내가 그 외나무다리를 건늘 때면 매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문을 열어젖히군 했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그것이 몇번째 아들인가를 가려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예상외로 문도 열리지 않았고 굴뚝에 저녁밥을 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으며 땔나무나 구정물버치를 들고 부엌문으로 들락날락하는 동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의 피가 일시에 얼어드는것같은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며 가까스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였다. 그리고 문을 열기 바쁘게 토방돌우에 그대로 주저앉을번하였다. 어머니의 침상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여있었던것이다. 내가 그만 걸음이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번개같이 머리를 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철주가 소리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왈칵 매여달리였다.

《형, 왜 인제야 오우?》

동생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나의 가슴에 마구 비비였다. 그리고는 목갈린 소리로 어린애들처럼 엉엉 울었다.

이번에는 영주동생이 돌덩이처럼 난데없이 날아들어 나의 왼쪽옆구리에 매여달리였다.

나는 토방돌우에 첩약꾸레미를 떨어뜨리며 통곡하는 두 동생을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모든것을 죄다 설명해주고있었으니 어머니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어쩌면 내가 없을 때에 이런 불행이 생길수 있단 말인가. 림종의 마지막순간에 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모성의 마지막행복마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차례질수 없었단 말인가. 가난속에 태여나 일생을 가난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수난당한 내 나라의 비운을 생각하여 남편의 희생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던 나의 어머니,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온넋과 육신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이 사사로운 인정에 빠져서 큰일을 그르칠가봐 늘 념려하시더니 혁명하는 아들에게 짐이 된다고 어머니는 그렇게도 서둘러 눈을 감으신것이나 아닌가.

나는 이전날 어머니가 나를 마지막으로 훈계하실 때 잡고계시던 그 문설주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설사 그때보다 더 엄한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문앞에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다시한번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철주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었니?》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사립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선 김씨녀인이 철주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보고 이런 말을 했다우.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성주가 오거든 내가 대하듯 해주세요. 왜놈들이 살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아니, 문전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주는 싸우다가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고는 나더러 문을 열어달라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저기 외나무다리가 있는쪽을 접도록 바라보더구만.》

김씨녀인의 말은 먼 《하늘나라》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매 말마디가 안고있는 심오하고도 비통한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죄다 똑똑히 깨달을수가 있었다.

나는 두 동생을 부여안은채 외나무다리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채 영면하는 순간의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상상의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오열이 급작스레 폭발하였다.

한창 울다가 고개를 쳐드니 김씨녀인이 눈물어린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고있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려깊었던지 나는 하마트면 어머니의 눈이라고 착각할번하였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기는것같은 슬픔과 고통속에서도 잠시나마 리성을 되찾고 마지막순간까지 어머니의 길동무가 되여준 김씨녀인에게 감사를 드리였다.

그러자 김씨녀인은 더 슬프게 흐느껴울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소. 나는 자주 와보지 못했소.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다나니 어머니의 곁에는 머리를 빗어드릴 사람도 없었다우. 아우들도 혁명사업을 하느라고 집에 붙어있지 못했소. 어느날 어머니는 나보고 사내아이들모양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구 하지 않겠소. 머리가 가렵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부탁을 받고도 차마 가위질을 할수가 없었소. 어머니의 머리야 얼마나 소담하고 칠칠했소.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소원대로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소. 머리만 가렵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갈것 같다구… 그래서 그 아까운 머리를…》

김씨녀인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소리를 내여 울었다.

나는 차라리 그 말을 듣지 말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비통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오장을 갈기갈기 찢어내는것같았다. 일생을 바쳐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오신 어머니인데 그 품에서 자라난 자식들에게는 림종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곁에서 머리를 빗어드릴 효성마저 없었단 말인가.

(다음호에 계속)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여

세기를 이어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6월 19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최고참모부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당, 어머니당,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하게 되였다.

그중에서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공고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를 비롯한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관계를 강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본성적요구이고 특징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어머니당건설의 숭고한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것을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전당이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뚜렷이 부각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좌우명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활동방식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어머니당으로,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된것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단결은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이며 최강의 무기이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전사회적인 단결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처럼 갈망하면서도 이룰수 없었던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실현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민위천은 우리 당건설과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국가활동의 출발점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국호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가지 명예칭호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하여 부르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제도, 우리 정치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도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시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신 그이의 령도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반석같이 다진 강력한 원동력이였다.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의 위력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뚜렷이 검증된다. 조선로동당은 최악의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시기에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였고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당은 언제나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여기며 헌신적복무로 받들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력이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당의 본태와 본도는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당과 정부의 최중대사로 여기며 인민의 소원을 곧 당의 숙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놓고있다.

오늘 력사의 모진 난관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며 왕성한 활력에 넘쳐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하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설계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받들어 조국인민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이 영원하고 인민의 힘이 무한하듯이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당은 영원하다.

김윤정

유리공예 《춘추정성》

유리공예《춘추정성》은 주체103(2014)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에 살고있는 해외동포 최동원이 드린 선물이다.

선물에 형상한《사람 인》자모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뜻하며 유리속의 미세한 기포는 살아숨쉬는 강한 생명력과 조선민족의 강의성을 형상하였다.

선물의 기본색을 이루는 푸른색은 조국의 맑은 하늘을 상징하고있으며 금은보화가 가득차게 형상한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를 념원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춘추정성》이란 혈기왕성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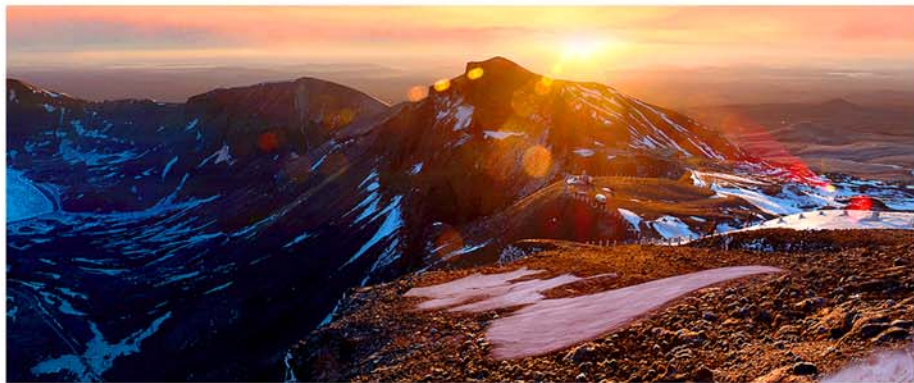
선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　　*　　*

백두산 (1)

백두산은 량강도 삼지연시의 북부에 위치하고있다.

백두산은 조국에서 제일 높고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다른 산들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명산중의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불리우고있다.

조종의 산

백두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조선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있는 력사의 산이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떠이고 솟은 산이라는데서 유래된것이다.

백두산은 장군봉(2 750m), 향도봉(2 712m), 청석봉(2 662m), 쌍무지개봉(2 626m) 등 2 500m이상 되는 련봉들이 하늘로 치솟아있어 웅장할뿐 아니라 백두산정점에는 천지가 있어 매우 신비로운 산으로 간주되여왔다.

력사적으로 백두산은 불함산, 도태산, 개마대산, 백산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이러한 이름들에는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흰산, 산마루에 사시장철 흰눈이 뒤덮여 옥을 세운 봉우리같다는 등 여러가지 뜻이 담겨져있다.

백두산을 조종의 산이라고 하는것은 백두산이 지질학적 및 지리학적으로 볼 때 조선의 모든 산과 산줄기의 시원, 근본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또한 백두산을 력대로 조종의 산이라고 한데는 조선민족이 백두산을 국가의 발상지로,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성산으로 간주한데도 있다.

고조선과 고구려 등으로 이어진 조선민족사의 기본흐름을 이룬 국가들의 집권자들은 저들의 국가창건이 백두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백두산의 정기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백두산에 민족의 넋과 슬기, 정기가 깃들어있다고 확신하였기때문이다.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단군조선)시기에 벌써 선조들은 백두산을 원시조 단군과 결부하여 성산으로 숭배하여왔다.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도 자기의 건국을 백두산과 련관시켰다. 고구려사람들은 시조왕 고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자부함으로써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임을 널리 선전하는 한편 건국과정을 백두산과 직접 결부시켰다.

선조들은 백두산에 민족의 정기가 깃들어있다고 확신하였기때문에 백두산을 성지, 성산으로 숭배하였으며 이로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것을 관례로 삼고 크게 진행하였다.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발굴된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던 제단유적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은 20년간 풍찬로숙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산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가 내리고 찬란한 미래의 해돋이가 시작된 혁명의 성산이다.

정일봉앞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백두산밀영사령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닻을 올리신 그때로부터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수천수만리로정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빛나는 로정이다.

조국인민들은 조선혁명의 로정이 시작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아로새겨져있으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의 뿌리가 내린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 영웅의 산으로 자랑하고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고향이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큰뜻과 담을 키우신 곳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의 주소도 없는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였다.

그이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조선민족의 일대 경사였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과 조선혁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백두산밀영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옹호관철하시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그리고 1930년대후반기와 1940년대전반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이며 조선혁명의 책원지였던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가 자리잡고있다. 소백수골안에는 백두산밀영을 비롯하여 사자봉밀영, 곰산밀영 등이 있다. 백두산에서 남쪽으로는 5호물동혁명전적지,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등이 자리잡고있으며 동쪽으로는 무포숙영지, 대홍단혁명전적지, 신사동혁명전적지들이 있다.

참으로 백두산의 산봉우리들과 물,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이 깃들어있으며 항일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수많은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력사의 산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천지면적 9.16㎢
최대물깊이 384m

백두산화산체

백두산화산체는 신생대 제3기부터 진행된 여러차례의 분출작용에 의하여 크게 6단계에 걸쳐 형성되였다.

제1단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만년전(신제3기상신세)에 있은 점성이 낮은 현무암의 흐름성분출에 의하여 넓은 령역에 방패모양의 용암대지를 형성한 단계이다. 이때 백두산체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현무암대지의 두께는 약 600m였으며 백두산의 해발높이는 2 100m정도였다.

제2단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6만~40만년전(제4기중세)에 점성이 높은 조면암, 조면영안암의 흐름성분출이 진행되였는데 용암은 분화구로부터 멀리까지 흐르지 못하고 분화구주변에 쌓여 층을 이루면서 종모양의 화산체를 이루었다. 이때 백두산의 해발높이는 약 3 200m였다.

제3단계는 백두산화산에서 분출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백두산화산의 주변에서 현무암질암장의 분출활동이 진행되여 대연지봉, 무두봉, 대각봉, 소연지봉을 비롯한 백두산화산의 기생화산들이 형성된 단계로서 분출활동시기는 17만년전(제4기중세)이였다.

제4단계는 13만~10.1만년전(제4기중세말)에 여러 차례 엇바뀌여 진행된 조면영안암질암장의 폭발성분출과 흐름성분출작용단계이다. 2단계에 분출하던 점성이 높은 암장에 의해 백두산화산의 기본화도가 막혀 방사상틈새와 첫번째 환상틈새가 사귀는 곳들에서 분출작용이 진행되여 지금의 장군봉, 향도봉, 쌍무지개봉, 해발봉 등의 외륜산봉우리들이 형성되였다. 이 분출작용에 의해 각이한 두께와 모양의 성층화산들이 이루어졌다. 백두산의 절대높이는 얼마 높아지지 않았는데 해발높이는 3 320m였다.

제5단계는 벌려진 균렬들을 통한 류문암질암장의 흐름성분출단계인데 분출시기는 8만~5.7만년전(제4기상세)이다. 이 분출작용의 마지막시기에 가스함량이 높은 류문암질암장이 흘러나와 위성사진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류문암질용암의 흐름무늬를 형성하였다. 이때 역시 백두산의 절대높이는 얼마 높아지지 않았는데 해발높이는 약 3 400m정도였다.

제6단계에서는 부석대폭발분출이 약 1 000년전에 진행되였다.

이때 기본화도인 분화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첫 분출이 진행되였고 뒤이어 여러개의 분화구에서 련달아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그이후 진행된 함몰과정에 의하여 지금의 백두산화산체와 천지분화구가 형성되였다. 백두산화산체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의 해발높이는 2 750m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혁주
변찬우

잔디연구사들

평양잔디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새로운 잔디를 육종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연구사들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잔디품종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 생물학적특성과 재배관리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새 잔디품종도 육종해내고있다.

연구집단은 평양시는 물론 백두산지구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하여 국내에 널리 퍼져있는 수십종의 야생지피식물종자들을 채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포전들에 심고 가꾸면서 여러가지 생물공학적수법들을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금잔디 《평양4》호, 《평양5》호와 같은 새 품종의 잔디를 육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품종들은 종전의 잔디들에 비해 가물견딜성과 추위, 병저항성이 높으며 보다는 록색기일이 길어 평양과 여러 지방들에 널리 퍼쳐지고있다.

한편 연구집단은 《만경1》호, 《남산1》호, 《남산2》호 등의 새로운 왕꿰미풀품종의 잔디들도 련이어 육종하였다.

이 잔디들은 여러 지방에서 자라는 왕꿰미개체들을 수집하여 새롭게 육종해낸 품종들로서 북부고산지대와 중부지역 등의 잔디밭조성에 매우 유익하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잔디품종들을 조국의 기후조건에 맞게 풍토순화시키며 좋은 품종의 잔디들을 육종하기 위한데서도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금수산잔디1》호와 《칠골》 등을 들수 있다.

《금수산잔디1》호는 다른 나라의 잔디품종을 풍토순화시켜 도입육종한 품종이라면 《칠골》은 국내에서 자라는 잔겨이삭군락의 우량한 개체를 수집하여 새롭게 육종해낸 품종이다.

《칠골》은 《금수산잔디1》호에 비하여 가물과 고온견딜성이 높아 잔디밭관리에 품이 적게 들뿐 아니라 해빛이 들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라 그늘이 지는 거리와 공원, 정원 등의 잔디밭조성에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진단및 예방구제연구사업에도 힘을 넣어 지역들에 뿌리내린 새 품종의 잔디들이 그 어디에서나 푸르싱싱히 자라나도록 하고있다.

지금 이곳 연구집단이 육종해낸 새 품종의 잔디들은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려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비롯한 전국각지에 널리 퍼쳐져 거리와 마을을 단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교육자 부부의 지향

-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정명국의 가정을 찾아서 -

남편 정명국

안해 장정혁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학부 인공지능연구소 실장 정명국과 응용수학부 교원 장정혁(안해)을 두고 사람들은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부른다.

단순히 부부간의 정이 두터워서가 아니다.

보다는 부부간의 두터운 정이 과학교육사업에 이바지되여 높은 사업실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대학생시절 그 누구보다도 향학열이 높았던 그들은 서로의 열정에 탄복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여 한가정을 이루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 그들은 변함없이 서로 위해주고 고무해주면서 과학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합쳐왔다.

교육자인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모자라는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이들부부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가 관심하고 도와주고 방조를 주며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짜내군 한다.

남편인 정명국실장으로 말하면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어느한 나라의 이름있는 대학에서 연구원생으로 공부하면서 가치있는 론문을 제출하여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는 실력있는 교육자이다. 그는 지난 기간 네데를란드에서 발간하는 《신경계산》을 비롯한 SCI급과 EI급국제학술잡지에 여러건의 과학기술론문들을 투고하였다. 그가 창안집필한 새 교수방법들과 교과서, 참고서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혁신적이여서 대학적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그는 대학적으로 소문난 모범남편이기도 하다. 그는 안해의 교육사업에 늘 관심을 돌리면서 필요한 방조를 주고있다. 한편 안해도 남편의 과학교육사업에 하나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왼심을 많이 쓴다고 한다.

저녁시간이면 이들부부의 화제는 종종 과학교육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응용수학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최근 인공지능기술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선진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자면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

이렇게 서로가 론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거듭한 문제들은 대부분 실천에로 이어져 성과를 낳게 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남편인 정명국실장은 《립자계와 3차원재구성에 기초한 모의결합형축포발사체계의 자료편성과 전송에 대한 연구》라는 론문을 발표하여 박사가 되였고 그로부터 1년후에는 부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다. 안해인 장정혁도 《수치해석》과 《수치해석학과목 실록화강의》 등 여러건의 교과서들과 새 교수방법들을 집필하여 교육과학성과등록증과 10월8일모범교수자, 부교수학직을 수여받게 되였다.

교원년한과 배워주는 과목은 서로 달라도 나라의 과학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는 그들 부부였다.

하기에 그들부부가 집단의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것이였다.

그들부부는 오늘도 부흥할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과학교육발전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하나의 지향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식

심리건강

일반적으로 건강이란 인체의 모든 기관과 계통들에 아무런 병적변화도 없으며 정상적인 생리적기능과 충분한 육체적, 정신적활동능력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부터 신체건강 못지 않게 심리건강도 중요하다.

심리건강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심리활동으로서 평온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발전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훌륭한 적응능력을 유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균형이 잡힌 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심리건강을 유지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여 몸을 단련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조직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등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기관들에 찾아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 * *

젊음을 주는 집

사회주의변화가로 솟아난 화성거리에는 다른 거리들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던 로인건강원들이 자리잡고있다.

화성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로인건강원들은 명칭그대로 로인들이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즐길수 있도록 편의봉사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화성1로인건강원에는 로인들에게 몸상태에 따르는 치료목욕방법과 체질에 맞는 건강식품, 로화방지제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상담실과 로인들이 탁구를 치고 춤도 출수 있는 다기능홀과 치료목욕실 그리고 장기와 바둑, 윷놀이를 두며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는 오락실, 건강에 필요한 상식도서들을 갖춘 도서실 등이 꾸려져있다.

화성2로인건강원은 또 나름대로 특색있다.

이곳에는 자전거운동기재, 온몸떨기기재, 허리안마기재, 전신안마기재 등을 갖춘 치료체육실과 감탕과 파라핀을 리용하는 치료실도 있으며 국부쪼임용먼적외선복사기를 갖춘 한증칸과 약물목욕실도 있다.

치료체육실에서 운동을 한 로인들은 자전거운동기재를 리용하니 다리근육이 튼튼해져서 정말 좋다고, 온몸떨기기재와 허리안마기재를 리용한 후부터 허리가 쏘던 증상이 없어지고 밥맛도 좋아졌다고 저마끔 이야기하고있다.

로인들의 이런 목소리는 치료실과 안마실에서도 들을수 있다.

수도의 새 거리에서 강원도의 이름난 시중호감탕치료를 받고 소화기장애가 씻은듯이 없어졌다고 하는가 하면 안마치료를 받았더니 오래동안 앓던 콩팥염이 퍼그나 나아졌다는 로인들의 이야기가 그칠줄 모른다.

화성2로인건강원 책임자 박경실은 《우리는 구역안의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비롯한 공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우대봉사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우리 봉사자들은 치료체육과 치료목욕, 안마까지 받고 만족하게 웃는 로인들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라고 하였다.

로인건강원이 문을 연 때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게 이곳을 찾아오고있는 청화1동 53인민반에 살고있는 리정숙로인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정말이지 로인건강원은 젊음을 주는 집입니다. 나라의 은덕으로 희한한 새 거리에 입사하였을 때 이게 꿈이 아닌가싶었는데 집가까이에 훌륭한 로인건강원까지 일떠서서 기쁨과 젊음을 안겨주고있으니 우리는 나라의 고마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류광혁

천연가죽제품 《포부》가방

경공업성 포부경공업품생산소에서 천연가죽으로 만든 《포부》가방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포부》가방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부》가방들은 질감이 부드러워 손맛이 좋고 색갈도 고상하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1%의 가능성도 적은것이 아니다

김만유병원 심장외과 의료일군들은 높은 실력과 뜨거운 인간애를 겸비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의료집단에 의해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은 수많은 환자들은 일생 그들을 잊지 못해하며 감사의 편지를 자주 보내고있다. 하다면 이곳 의료일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체112(2023)년 6월 김만유병원 심장외과로는 구급환자가 실려왔다. 심장병에서도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감염성심내막염과 심부전4도에 여러 장기들에까지 장애가 들어온 최중증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20대의 환자였다. 기성문헌자료에도 이러한 경우 수술도중 환자의 사망률은 99%, 수술을 하지 않으면 2~3일후에는 사망하게 된다고 밝혀져있었다. 리론상 환자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과의 의료일군들은 1%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수술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환자에 대한 구급소생치료를 벌리면서 기술협의회를 열고 치료방안들을 세웠다. 며칠동안은 호전상태로 이전하는가싶었는데 다시 리뇨장애가 나타나고 간기능장애와 콩팥부전까지 겹쳐 병상태는 매우 위급하였다.

과에서는 즉시 련관과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7시간에 걸치는 긴장한 수술끝에 환자를 살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수술후 환자의 몸을 추세우기 위하여 과성원들은 지극한 정성을 바치였다. 과장 리성진과 부과장 리광혁, 담당의사 최명경은 위험한 고비를 갓 넘긴 환자에 대한 관찰을 교대로 진행하면서 사소한 이상증세도 놓치지 않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과의 간호장과 간호원들도 환자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다.

40여일간에 걸치는 치료끝에 완쾌되여 퇴원하는 날 환자는 이러한 글을 남기였다.

《저의 생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되찾아준것입니다. 내 심장의 고동이 다할 때까지 고마운 제도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겠습니다.》

이것은 과의 치료일지에 수많이 기록된 글들중의 하나이다.

과의 모든 의료일군들은 높은 의료기술이 안받침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할 때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수 있다는 책임감을 안고있다.

과장 리성진의 말에 의하면 과에서는 주에 2차 진행되는 기술학습시간에 의사들이 지난 시기 진행한 수술경험과 교훈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정확한 진단이 가지는 중요성과 수술적응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도들을 모색한다고 한다.

과에서 특별히 중요시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중진의사들과 신진의사들사이의 기술전습에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중진의사들은 자기들의 림상경험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좋은 경험을 통하여 자기식의 치료방법들을 찾아 림상실천에 도입하고있다. 이 과정에 《대동맥판막질병의 외과적치료성적에 대한 림상적연구》, 《승모판질병의 외과적치료에서 자기판막보존수술에 대한 림상적연구》를 비롯한 과학적인 치료방법들이 정립되여 환자치료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오늘 과의 모든 의사들은 심방중격결손증, 페동맥판협착증을 비롯한 여러 수술들을 손색없이 하고있으며 보다 새로운 수술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녀자권투감독 박철준

금강산선수단의 녀자권투감독 박철준은 국내권투계의 이름있는 감독이다.

어렸을 때부터 권투를 한 박철준은 4.25체육단(당시)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선수생활을 마친 그는 주체93(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강산선수단에서 권투감독으로 사업하고있다.

그 나날 그가 키워낸 선수들은 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쟁취하게 되였으며 그 선수들과 더불어 감독의 실력이 인정되게 되였다.

다년간의 선수생활경력과 수십년간의 감독경험 등이 그를 저절로 실력있는 감독으로 되게 한것은 아니다.

감독으로 임명되였을 당시 그는 우수한 녀자권투선수들을 키워낼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선수들과 팀의 실력과 경기승패는 감독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세계적인 권투발전추세와 전적있는 권투선수들의 경기과정, 이름있는 권투감독들에 대한 자료 등을 연구분석하면서 선수들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술적묘리를 찾아 훈련에 적용해보기도 하였다.

특히 특기기술을 체질화하고 모든 경기를 기술전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식훈련을 많이 조직한 그는 훈련을 통하여 선수들이 자기의 기술을 공고히 하면서 경기정황에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나가도록 하였다.

그가 훈련지도에서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선수들을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는것이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배들과의 상봉도 자주 조직하여 선수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육체적극한점을 이겨내기 힘들어할 때에는 금메달에 비낀 조국의 무게에 대해 잘 알도록 이끌어주었다.

하기에 방철미선수는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권투 54kg급경기에서 체육선수로서는 로년기에 이르렀다고 말할수 있었지만 배심든든히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랐던것이다.

그는 경기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때에 전술을 세울줄 아는 묘기를 가진 로련한 감독이기도 하다.

언제인가 국제경기에서 원은경선수가 육체적조건이 좋은 타이선수에게 밀리워 자기의 특기기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에도 그는 새로운 전술방안을 세움으로써 경기가 역전되도록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느해인가 방철미선수와 미국선수사이의 경기때에도 그는 정확한 판단과 결심으로 상대선수가 예측할수 없는 새로운 경기방안을 세워 미국선수를 타승할수 있게 하였다.

박철준감독의 지도에 의하여 2018년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1kg급경기에서 방철미선수가 세계선수권을, 주체107(2018)년에 진행된 아시아청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4kg급경기에서 원은경선수가 1위를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거나 순위권에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체육인인 그는 련속 4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온실도시》의 주인들

조국에서 불과 몇년어간에 중평과 련포에 대규모온실들이 련이어 솟아오른데 이어 얼마전 수도의 교외에 강동종합온실농장이 일떠섰다.

얼마전 우리는 이 종합온실농장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우리가 차를 타고 평양에서 강동쪽으로 100리가량 달리니 농장의 희한한 자태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이곳에는 각이한 온실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고 다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과 학교와 유치원, 문화후생시설들 역시 도시부럽지 않게 건설되여 이채를 띠였다.

이곳 경리인 량광일의 말에 의하면 강동종합온실농장은 수도시민들의 남새보장을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곳에 있던 중요군사기지를 통채로 내도록 하시고 시공과 건설등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일떠서게 되였다고 한다.

우리는 종합온실농장의 새 주인들을 만나보기 위해 《식물공장》이라 불리우는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부터 먼저 찾았다.

온실에서는 원통형남새재배장치를 리용하여 부루, 료리배추를 비롯한 잎남새와 기능성남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온실관리원인 김광성은 원통형남새재배장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던 이 재배장치를 우리 과학자들이 짧은 기간에 개발도입한것도 놀라운것이지만 다름아닌 자기가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 지능화된 첨단설비를 다루는것이 더 놀랍게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는 덩지가 큰 반궁륭식2중박막수경온실 24호동에 들리였다.

온실에 들어서니 기질주머니에서 안내줄을 따라 솟구치는 무수한 오이, 도마도줄기들이 푸르싱싱하고 가지마다에는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한창 수확시기를 가까이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료리배추, 부루 등이 온실벽면을 채우고있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잎남새, 열매남새들은 새 품종을 도입육종한것으로서 종전에 비해 생산량을 배로 늘일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큰 온실호동을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은가고 묻는

첫 등교

우리에게 관리원인 홍화는 온실관리와 남새재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고 창가림은 물론 육중한 보온이불도 단추 하나로 조종할수 있으며 소독도 코로나방전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로 진행하니 로동은 노래라네, 기쁨이라네라는 노래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하는것이였다.

조업후 이 호동에서만도 많은 오이와 배추를 수확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런 성과는 그만이 아닌 다른 호동의 관리원들속에서도 일어나고있었다.

남새저장고에는 갓 수확되여 남새수송차를 기다리는 갖가지 열매남새, 잎남새들이 그득히 쌓여있었다. 이제 저 남새들이 평양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이어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 자연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줄지어 늘어선 살림집들이 있는 구획으로 이어졌다.

소층, 다층살림집도 좋았지만 다락식으로 된 집들도 나무랄데 없었다.

이제는 입사한지 퍼그나 시일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새집이 너무도 좋아 집주변을 몇번이고 돌아보기도 하고 퇴근이후에는 일부러 주변야산에 올라가 마을전경을 부감하기도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살림집인 86호동 1현관 1층 1호에서 사는 제대군인부부 한진혁, 최은숙의 심정은 더하였다.

그들부부는 자기들이 받아안은 영광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그 은덕에 더 많은 남새생산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받아안으며 이곳 종업원들이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벌리는 문화회관과 종합봉사시설들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을 돌아보았다.

보면 볼수록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나날이 줄어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웅대한 목표가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임정국

강동종합온실농장 10일유치원에서

은덕원에서

문화회관

종합진료소

강동군 봉화고급중학교

소성수

사지종양학의 초행길을 걸어

나는 설사 환자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 해도 이를 치료할수 있는 학문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본분이기때문에…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사지종양연구실 실장 소성수라고 하면 종양학부문에서 이름이 자자하다.

그도 그럴것이 소성수실장은 국내에서 종양학의 한개 부문인 사지종양학을 개척하고 진단 및 치료방법을 연구완성한 공로가 있기때문이다.

미개척분야의 길을 걷는다는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사지종양은 발병률이 전체 악성종양의 1%밖에 안되는것으로 하여 병증례가 흔치 않아 누구나 선뜻 나설념을 하지 않는 분야였다.

함흥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수사업과 치료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성수는 주저없이 미지의 길에 나섰다.

그후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로 소환된 그는 사지종양분야를 파고들었다.

한개 학문에 포함되여있는 수많은 개념들과 그로부터 나오는 술어들을 정식화하고 각종 사지종양형태에 따르는 진단과 치료방법을 연구하느라 지칠 때가 많았다.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많은 참고도서들을 탐독하느라 언제 시간이 흐르는지 몰랐다. 어떤 날은 아무러한 진전도 없이 공회전을 할 때도 있었다.

나약해지고 힘들어질 때면 그는 의사복의 명표에 씌여진 《정성》이라는 글을 보군 하였다고 한다.

정성!

비록 두자밖에 안되는 글자였지만 그에게는 잊을수 없는 추억을 돌이켜보게 하는 단어였다.

이 말이 그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것은 일본 나고야시에서 유년시절을 보낼 때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장손인 그에게 병원에 갔어도 돈이 없어 숨진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군 하였다.

그러면서 맏장손인 너는 꼭 의사가 되라고, 청진기를 돈에 먼저 대는 의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어린 성수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군 하였다.

의사가 되는것은 할아버지의 소원이자 그의 꿈으로 되였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도 비싸 일본에서는 그것이 실현될수 없었다.

주체72(1983)년 조국에 와서 그의 꿈은 실현되였다.

함흥의학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는 1960년대 전신화상을 당한 방하수소년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의사들중에는 자기 대학병원 의사들과 학생들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한명의 소년을 위해 자기들의 피를 뽑고 살을 서슴없이 떼내며 정성을 다한 의사들과 대학생들.

소성수실장의 눈앞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되새겨지며 정성이라는 글자가 무심히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의사들의 앞가슴에서는 볼수 없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글자였던것이다.

소성수실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의료일군이 될 결심을 가지게 되였고 매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림하였다.

하기에 그는 오랜 기간의 문헌 및 림상연구를 통하여 《골종양의 화상진단》, 《골 및 연부조직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비롯한 많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지종양학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가 쓴 론문 《연부조직육종의 수술방법에 따르는 국소재발과 생존률에 대한 연구》는 《전국방역, 보건부문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2022》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의학부문 학술토론회에서 1등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섬유, 지방, 근육, 신경, 혈관, 활액막과 같은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여러건의 수술적치료방법을 조선사람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과학화하여 림상에 도입하였다.

이 나날 부교수의 학직을 소유하고 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도 키워냈다.

5년전 일본에서 사는 그의 삼촌은 조국을 방문하여 꿈을 이룬 조카를 축하해주었다고 한다.

올해 나이가 62살인 소성수실장은 사지종양치료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소성수의 가족

아름다운 구슬에 비겨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땅에서도 민족음식을 언제나 즐겨 드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경단을 잡수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음식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잡지 《금수강산》에 경단에 대해 소개하게 된것은 얼마전 이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그리고 인상깊게 맛본 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저의 동무의 생일날이였습니다.

풍성하게 차린 생일상을 마주하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것같았습니다.

그 많은 음식가운데는 저뿐만이 아닌 많은 손님들의 눈길을 유별나게 끄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맑은 유리그릇에 여러가지 색갈의 아름다운 구슬알들이 담겨져있는것만 같은 그 음식은 바로 경단이라는 떡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경단을 맛보게 된 저는 이렇게 맛좋은 음식을 동포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싶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단이란 어떤 떡인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떡은 리용하는 기본음식감에 따라 낟알로 만든것, 낟알가루로 만든것, 낟알가루에 다른 부재료를 섞어 만든것으로 나누며 가공방법에 따라 찐떡, 친떡, 지진떡, 삶은떡, 튀긴떡, 구운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단은 찹쌀가루에 당분을 넣고 익반죽한것을 밤알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내여 고물을 묻힌 떡인데 동글동글한 떡모양이 마치 구슬과 같다하여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력사기록상으로는 1680년에 나온 문헌 《요록》에 처음 경단이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경단은 고물의 재료에 따라 감경단, 감자경단, 찰수수경단, 깨경단, 밤경단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경단은 모양이 곱고 맛이 특이하며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경단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감경단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음식감으로 감 500g, 찹쌀가루 1kg, 잣가루 100g, 사탕가루 20g을 준비합니다.

감을 깨끗이 씻고 즙을 낸 다음 찹쌀가루에 감즙과 소금, 사탕가루를 두고 반죽하여 반대기를 만들어서 찝니다. 이것을 풀기나게 쳐서 밤알만큼씩 떼여 잣가루에 묻혀 그릇에 냅니다.

감자경단은 함경도지방에서 명절음식의 하나로 꼽히였습니다.

음식감으로 감자 1kg, 농마가루 300g, 콩 100g, 소금 5g을 준비합니다.

감자는 깨끗이 씻어 푹 쪄낸 다음 껍질을 벗기고 식기 전에 주걱으로 잘 으깨여놓습니다. 콩은 깨끗이 씻어서 잘 닦은 다음 소금을 두고 보드랍게 가루를 냅니다.

으깬 감자에 농마가루와 소금을 두고 되직하게 반죽하여 동글동글하게 빚은 다음 끓는 물에 넣는데 떠오르면 찬물을 약간 붓고 끓이다가 다시 떠오를 때 건지여 찬물에서 식힌 다음 물을 찌웁니다.

이것을 콩가루에 고루 묻혀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 냅니다.

찰수수경단의 음식감으로는 찰수수가루 1kg, 붉은팥 300g, 꿀 30g, 소금 5g을 준비합니다.

붉은팥은 삶아 소금을 두고 으깬 다음 성근 채에 거르어 고물을 만듭니다. 찰수수가루는 끓는 소금물을 두고 익반죽합니다.

반죽을 둥글게 빚어 끓는 물에 삶은 다음 건져 찬물에 담그었다가 물을 찌웁니다. 이것에 꿀을 바르고 고물을 묻혀 냅니다.

이렇게 만든 경단을 한알 들어 입에 넣으면 쫄깃쫄깃하면서도 달디단 맛이 어울려 목안으로 삼키기가 참으로 아쉬울 정도입니다.

먼 옛날부터 정결하고 소박한것을 좋아하며 순수하고 담박한 맛을 즐기던 조선사람들의 독특한 구미와 기호에 맞게 발전되여온 경단과 같은 떡은 오늘도 명절날이나 의례행사때마다 널리 만들어 리용되고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슬에 비겨 경단이라고 불리우는 떡.

아마도 이 떡을 잡수실 때면 여러분은 천가지, 만가지 조화를 부리는 여의주를 입에 넣은듯 만족한 미소를 짓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최은혁

삼색경단

인삼약경단

유모아

엄마의 한마디

어느 휴식일에 한가족이 들놀이를 나갔다.

아들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자동차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아들애의 질문에 아버지는 《자동차는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네르기를 기계적에네르기로 바꾸어 움직인다. 네가 밥을 먹어야 뛰여놀수 있듯이 자동차도 기름을 주게 되면 움직인다.》라고 말하였다.

아들애는 아버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아들애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자동차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러자 엄마는 한마디로 대답해버렸다.

《자동차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간단다.》

* * *

법운암의 본전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룡악산의 법운암

5 000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조국에는 어디 가나 이름난 력사유적들이 옛 모습그대로 보존되여있습니다.

해외동포여러분이 조국에 올 때마다 룡악산이며 대성산, 묘향산,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등을 편답하면서 맑은 두눈에, 아니 가슴속에 유구하고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으로 고이 간직해두었을 력사유적들…

관광객들과 기행길에 오른 우리는 비록 이국땅에 살고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을 그리워하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것만 같아 발걸음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해외동포여러분, 그럼 이번호부터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우리와 함께 기행길을 이어가봅시다.

법운암 부속건물들의 일부

얼마전 어느 일요일 아침이였다.

평양대극장앞에 서있는 관광뻐스 《평양 74-1624》호로는 조선민족유산국제려행사에 룡악산관광을 예약한 손님들이 오르고있었다.

처녀관광안내원은 예쁘장한 얼굴에 미소를 짓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있었다.

우리는 평양의 《금강산》으로 일러오는 룡악산에로의 관광길을 그들과 동행하기로 하였다.

정각 9시 뻐스가 출발하자 잠시후 관광안내원이 마이크를 잡고 나서더니 손님들에게 백일옥이라는 자기의 이름에 대해 흥미있는 력사이야기와 유모아까지 섞어가며 구수하게 소개하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룡악산은 해발높이가 293m인데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있다고 하여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

그리고나서 그는 룡악산관광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룡악산관광일정에서 기본은 등산을 하여 산중턱까지 올라 그곳에 자리잡은 력사유적 법운암을 돌아보는것이였다.

어느덧 뻐스는 룡악산유원지입구에 멈춰섰다.

조선식기와를 머리에 얹은 룡악산문주와 그곁에 위치한 은정호며 은정각, 외랑 등 그 어느 곳에나 민족적인 색채가 짙게 어려있었다.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흥그럽게 바라본 우리는 간편하게 등산복차림을 하고 뻐스에서 내렸다.

드디여 룡악산등산이 시작되였다.

안내원을 앞세운 일행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경사각도가 거의 45~50°정도 되는 산비탈에 있는 돌계단을 밟으며 올랐다.

산을 오르며 보느라니 주위에는 신록이 푸르러가는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차있었다. 여기저기서 새들의 우짖음소리까지 정가롭게 들려와 산속의 정서를 더해주었다.

산아래를 굽어보니 기슭에 자리잡은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가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법운암이 바라보이는 산중턱에 이르자 등산객들은 다리쉼할념도 잊고 너도나도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우리일행을 맞아준 사람은 법운암 주지 신철룡(법호: 대평)

법운암을 찾은 근로자들

이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법운암은 고구려 광개토왕시기인 392년에 영명사에 속한 암자로 처음 세워진 후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 지었다고 한다.

본전뒤에는 독성각, 산신각, 칠성각이 서있었고 본전의 앞에는 석탑이, 곁에는 돌등, 망돌 등의 유물부분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여있었다.

주지는 관광객들을 향하여 뚜껑이 없는 가마같기도 하고 혹은 대야같기도 한 검은색의 유물을 손에 들어보이더니 망치로 한번 때리는것이였다. 《딱》 하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그는 이번에는 흰 방석우에 올려놓고 다시한번 종을 때렸는데 《징-》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오래동안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것이였다.

관광객들은 참으로 신기하다며 저마다 탄성을 터치였다.

주지는 법운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도량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면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헌신해온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애국의 마음이 깃든 불상인 아미타불, 단청, 기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선조들의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법운암에서 이채로운것은 그뿐이 아니였다.

암자주변은 온통 천연바위뿐이지만 이곳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참중나무, 회화나무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은행나무에는 고사가 깃들어있어 이채롭다.

임진조국전쟁시기였던 1595년에 법운암의 3명의 중이 애어린 은행나무를 한그루씩 가지런히 심고 전장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그루가 가까이에 심어지다나니 500여년동안 자라면서 마치 한구뎅이에 심은것처럼 뿌리가 합쳐지게 되였다. 놀라운것은 이 세그루가 다 수나무라는것이였다.

언제인가 이곳에 왔던 다른 나라의 식물학자들은 같은 수종의 나무를 한구뎅이에 심으면 절대로 살수가 없다, 산다고 해도 이상현상이 무조건 생길것인데 정말 이 세그루의 은행나무가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있는것만으로도 신기하다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들은 해마다 초겨울까지도 잎들을 다 안고 아름다움을 떨치다가 단 몇분동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날려보내군 한다.

몇해전 우연히 이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된 한 해외동포는 4년동안이나 해마다 이곳에 찾아와 며칠을 지키고있었지만 그 모습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

진정 1 630여년전의 옛 모습그대로 보존되여있는 법운암과 그 주변의 천연기념물들은 학술적의의가 클뿐 아니라 룡악산의 풍격을 더해주고있었다.

우리가 조선민족유산국제려행사의 관광객들과 함께 룡악산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의 귀중한 민족유산들이 국보로 보존관리되고있을뿐 아니라 인민의것으로 향유되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다시금 목격하면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의 한 성원이 된 자긍심을 안아보기에는 충분하였다.

뻐스에 오른 관광객들은 그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가요 《우리 민족 제일일세》를 부르며 룡악산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룡악산의 문바위

천연기념물 룡악산은행나무

사 명 당

사명당(1544년-1610년)은 중출신 의병장, 외교활동가이다. 사명당은 호이고 자는 리환, 이름은 유정, 다른 호는 송운이다.

13살에 중이 되여 서산대사 휴정(1520년-1604년)의 제자가 되였으며 불교교리를 통달한 후에는 금강산 유점사로 옮겼다.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일어나자 그는 묘향산에 있던 서산대사의 호소에 따라 관동지방의 중 약 700명으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평안도 순안으로 달려갔다. 당시 스승인 서산대사가 승병을 조직하고 왕명으로 총섭(총대장)으로 임명되였으나 늙어서 그 임무를 수행할수 없었으므로 사명당은 부총섭으로서 승병을 총지휘하였다. 그는 승병을 거느리고 도체찰사 류성룡의 지휘밑에 평양성전투에 참가하였고 그후 도원수 권률의 부대와 함께 패주하는 적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적진에 여러번 들어가서 적장 가또와 만나 당당한 외교활동으로 적들의 오만한 요구를 꺾어버리고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외교담판때에 있었던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한번은 가또가 조선에서는 무엇이 보물로 되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가또를 바라보면서 《너의 머리가 우리의 보물로 된다.》고 말함으로써 가또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고 한다.

적들이 재침한 후에는 여러 전투들을 승리적으로 지휘하여 임진조국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임진조국전쟁후 1604년에는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꾸가와 이에야스와 강화담판을 하였으며 귀국할 때에는 붙잡혀갔던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되찾아왔다.

* * *

장기수풀이 (18)

장기격언

큰 쪽 세개면 이긴다

큰 쪽들의 위력을 뜻하는것으로서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큰 쪽 세개의 결합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장기수풀이 (17)에 대한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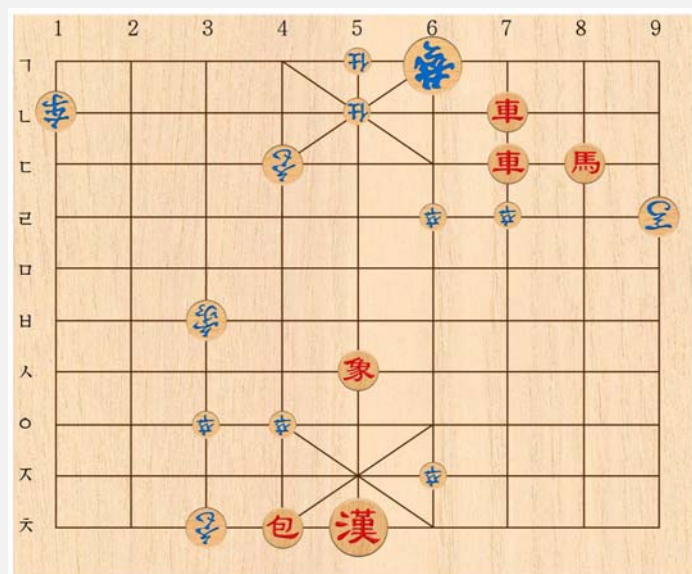
ㄴ7차ㄴ6, ㄱ6궁ㄴ6, ㄴ8병ㄴ7,
ㄴ6궁ㄱ6, ㅊ8차ㄱ8, ㄱ5포ㄱ8,
ㄴ7병ㄱ7, ㄱ6궁ㄱ5, ㅂ4상ㄹ7,
ㄴ5차ㄴ6, ㄱ7병ㄱ6,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북관대첩비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에 있는 력사유적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 정문부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기여든 왜적을 격멸소탕하고 큰 승리를 거둔것을 기념하여 1708년에 세운 비이다.

북관대첩비에서 《북관》이란 북방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며 《대첩》이란 《큰 승리》를 의미한다.

머리글에서는 정문부의병대의 투쟁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싸움에 못지 않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그 지위를 밝힌 다음 의병대조직과 중요전투에 대하여 썼다. 본문에는 왜적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의병들이 떨쳐일어나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적들이 북쪽땅에서 쫓겨났으며 백성들이 편안히 농사짓게 되였다고 하면서 정문부의병대의 공적을 무궁토록 전한다고 씌여져있다.

북관대첩비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력사를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는 조국의 귀중한 력사유적이다.

* * *

스승의 뒤를 이어 풍경화의 발전에 기여한 김유성

《산수도》 118.5×49.3㎝ 비단·담채

정선이라고 하면 금강산을 풍경화에 담아낸 재능있는 화가로서 17세기말부터 18세기중반기까지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우리 나라 풍경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주의적화가이다.

김유성은 정선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김유성은 스승의 뒤를 이어 당시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경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기법이 다양한 화가로서 사실주의적인 창작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진실하게 풍경화를 그렸으며 인물화나 화조화도 그에 못지 않게 잘 그리였다.

김유성이 정선의 제자로 있으면서 열심히 그림공부를 할 때 있은 일이였다.

어느날 정선은 유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릴데 대한 과제를 주었다.

과제를 받아안은 유성은 스승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꼭 훌륭히 수행하리라 단단히 결심을 품고 길을 떠났다.

행복한 순간!

과연 행복한 순간이 어떤 때인가?

유성은 쉬운것같으면서도 아리숭한 미지의 세계를 헤매이는 사람마냥 화구를 손에 들고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러던 그의 눈앞에는 살구꽃 흩날리는 나무밑에서 거문고를 타는 한 량반의 모습이 보였다.

얼마나 흥이 나서 타는지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유성은 서둘러 거문고를 타는 량반을 화첩에 그렸다.

다음은 파아란 물감통을 통채로 쏟아놓은듯한 새파란 하늘우에 꽃구름이 두둥실 떠가는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옮겨놓았다.

유성은 한시바삐 스승에게 보여주고싶어 한달음에 달려갔다.

《이 걸만 보고 속은 전혀 들여다볼줄 모르는 눈뜬 소경같은 녀석.

인간의 아름다운 생활을 조금도 들여다볼줄 모르는 너같은 녀석이 그림은 뭐 말라빠진 그림이냐?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할가.》

정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유성의 화첩을 탁 소리가 나게 덮어버리고는 밖으로 내던졌다.

유성은 칭찬 한마디 없이 된욕만을 퍼붓는 스승에 대한 고까움을 안고 봄아지랑이 가물가물 피여나는 둔덕길로 스적스적 올랐다.

생각해볼수록 서럽기만 하였다.

유성의 눈앞에는 어린 자기의 손에 붓대를 쥐여주며 하나하나 배워주던 스승의 모습이 얼른거렸고 귀전에는 날마다 늘어만가는 제자의 재능을 두고 친부모처럼 기뻐하며 등을 두드려주던 다정한 스승의 목소리만이 들리는듯싶었다.

그런데 그토록 정을 들여 키워온 제자를 난생처음 보는 사람대하듯하는 스승이 유성은 잘 리해되지 않았다.

유성은 울적한 마음을 안고 스승의 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까지 올라가 그밑을 서글프게 바라보았다.

하염없이 마을을 바라보던 유성의 눈가에는 숨돌릴새도 없이 부지런히 밭일을 하는 녀인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구슬알같은 땀방울을 훔치며 녀인은 밭에 씨를 뿌리고있었다.

한옆에 서있는 늙은 버드나무밑에는 쌔근쌔근 단잠에 든듯한 아기가 들어있는 싸리바구니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거리고있었다.

녀인은 밭일을 하다가도 이따금씩 단잠에 든 아기의 요람을 가볍게 흔들어주군 하였다.

잠시후 녀인은 흐르는 땀을 씻으며 요람에 든 아기를 가볍게 안아올렸다. 그리고는 진주보석 이런듯 귀여운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젖을 물리더니 가볍게 다독여주는것이였다.

그 녀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유성의 두눈이 번쩍이였다.

(아! 바로 저것이로구나.)

바쁜 농사철이여서 언제 한번 어린애를 살뜰히 돌볼새 없는 녀인에게 있어서 저 순간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랴.

창작적충동을 받은 유성은 단숨에 붓대를 들어 그 녀인의 모습을 자기의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는 나는듯이 스승의 집으로 달려갔다.

유성이 다시 그려가지고온 그림을 본 정선은 머리를 끄덕이고는 그와 뜨겁게 포옹하였다.

이밖에도 김유성은 《겨울》, 《가을》, 《매》 등 우수한 그림들을 수많이 그렸으며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그마한 화폭속에 함축성있게 집약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순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풍기는 삶의 즐거움을 세심하게 그린것은 당시 화단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였다.

그후 김유성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어느한 나라의 화가는 그에게 그림을 한폭 얻고싶다는 간절한 소청을 담은 편지도 보내여왔다.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경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의 이름은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상식

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화포제조기술자 리장손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겉으로 보면 공모양을 이루는 비격진천뢰는 외경이 330㎜이면서 질량이 71.62㎏인 별대비격진천뢰, 외경이 246㎜이면서 질량이 39.39㎏인 대비격진천뢰, 외경이 190㎜이면서 질량이 17.9㎏인 중비격진천뢰의 세가지 형태로 제작되였다.

비격진천뢰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에 왜적들을 쳐부시는데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비격진천뢰는 신관장치를 한 포탄, 시한탄의 첫 형태로서 세계화포력사에 알려졌다.

* * *

력사이야기

양태사와 다듬이소리

귀덕장군 양태사가 발해사신단의 부사로서 이국에 도착한것은 758년 9월이였다. 무척 더디게만 느껴지던 이국에서의 하루하루도 세월의 흐름에 실려 달을 쌓았다.

당시 발해임금이였던 3대 문왕 대흠무에게서 받은 사명도 끝내고 이제는 귀국의 그날만 기다리는 속에 새해를 맞게 되는 사신단성원들의 마음은 느닷없이 설레이였다.

시문에도 조예가 깊어 서정의 세계에 갈마들기 쉬운 성격상특질로 하여 만리타향에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양태사의 심경은 각별하였고 마음은 향수에 한껏 젖어있었다.

새해명절놀이로 번거롭던 759년 1월의 어느날 저녁이였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고있을 때 고즈넉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어디선가 다듬이소리가 울려왔다.

양태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듬이소리에 끌린듯 미닫이문을 제끼고 널마루에 나선 그는 사뭇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뚝닥 뚝닥…

다듬이소리를 듣는 양태사의 뇌리에는 조국을 떠나오기 얼마전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양태사의 집근처의 한 젊은 녀인이 밤이면 다듬이질을 하군 하였다. 너무도 시끄러워 양태사는 안해에게 왜 저 녀자는 밤마다 다듬이질을 해대며 소란스레 구는가고 물었다. 안해의 말이 그 녀인의 남편이 변경에 수자리살러 간지 여러해가 되였건만 소식이 묘연하여 밤마다 그가 입던 옷을 손질하며 그리워한다는것이였다.

양태사는 안해의 대답을 듣고나서 나라를 지키고저 떠난 사람이 혹 잘못되여 소식이 없는듯한데 그것을 가문의 영예로 여길노릇이지 어찌하여 밤마다 생각하며 심신을 괴롭히는가고 핀잔하였다.

상념에서 깨여난 양태사는 추연한 감정에 휩싸여 시녀에게 《지금 고국에서 듣던 다듬이소리를 다시 들으니 생각이 깊어진다. 저 다듬이소리에는 녀인들의 순결한 마음이 비껴있다. 내 땅, 내 고향의 향기란 결국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시녀는 양태사의 의미심장한 말을 받아주었다.

《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요란한데서만 생기겠나이까.》

《그래, 작은데서 큰것이 생기는 법이니 작은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 큰것을 아는것이라 하겠다. 난 지금껏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의의 검과 피묻은 갑옷에서만 표현되는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결코 그것만이 아니였다. 내 나라의 모든것 지어 길가에 딩구는 조약돌도 심상히 대하지 않는 그 모든것에서 우러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마친 양태사는 웅글은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절절하게 형상한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 * *

상식

화대사람

화대사람은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알려진 고인의 인류화석이다.

주체89(2000)년에 발견된 이 화석은 화산용암속에 묻힌 세계의 첫 인류화석이다.

어른(녀자)과 아이의 머리뼈, 골반뼈, 대퇴뼈, 팔뼈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른의 머리뼈의 특징은 이틀부가 돌출되여있는것이다. 그리고 첫째 큰어금이의 이머리길이는 14㎜이고 옆머리뼈비늘로부터 광대뼈돌기까지의 길이는 25㎜이다. 아이의 머리뼈화석의 특징은 눈확웃변두리에 해당하는 그 아래부위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이마가 곧추 서지 못하고 뒤로 제껴져있으며 큰어금이 뒤공간이 잘 형성되여있는것이다.

화대사람은 30만년전에 해당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시기에 속하는 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 조선사람이 이 땅에서 발생하여 진화해왔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

천연기념물

함흥반송(함흥퍼진소나무)

함흥반송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의 유적건물앞마당에 있는 한그루의 변형소나무이다.

함흥반송은 400여년 자란 나무이다.

나무의 줄기는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다가 땅과 수평되게 남서방향으로 곧게 뻗으면서 두갈래로 갈라졌다. 두갈래의 가지에서는 많은 잔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잔가지끝에 푸른 잎이 펼쳐져있는것으로 하여 아름다운 소반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함흥반송은 희귀한 변형소나무로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나무이다. 그 모양이 기묘하게 생겨 식물학연구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다.

함흥반송은 오랜 력사유적과 잘 어울려 오늘도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금강산의 비봉폭포/변찬우

ㄱ-24088016769